시장 보좌진 몸집만 키웠나…의회 소통·책임 부재 도마 위

운영위, 비서실 등 행감

전문임기제 수석·보좌관 13개로 확대
비서실·시정상황실 등 업무 분장 미흡
시민 민원 파악·대응체계 허술 지적도
내부 논의 사안 시장 SNS 공개 신중론
비서실장 "소통 부족 인정…개선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장 보좌진을 대폭 확대하고도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업무 분장과 주요 현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보좌진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일 시장 비서실, 보좌기관, 시정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좌진의 역할과 책임 소재, 의회와의 협력 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전문임기제 수석·보좌관 직위가 13개로 확대됐지만 비서실, 시정상황실, 정책총괄수석, 대외소통보좌관 등의 역할이 중복되고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보좌하는 사람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불분명하다"며 "비서실, 시정상황실, 정책총괄수석, 대외소통보좌관 등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 부시장 인선,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통합 등 주요 현안을 거론하며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시장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다시 의회에 설명되는 소통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선 의원(민주당·비례)은 "비서실 인력의 70% 이상이 5급 이상이고 4-8급 12명의 업무가 동일하다"며 "별정직과 전문임기제 인력의 직급별 배치 기준을 재정립하고 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업무를 분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섭 의원(민주당·서구2)도 국립의대 입지와 청사 기능 배치 등 권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좌진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업무 분장표 제출을 요구했다.

노진성 의원(민주당·동구2)은 "전남광주시가 출범한 지 126일이 지났는데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보좌진을 오늘 처음 만났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나 의회에서 나온 문제들을 비서실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경애 의원(민주당·서구3)은 서울사무소와 시정상황실에 국회협력 인력이 각각 배치된 점을 거론하며 업무 중복 문제를 꼬집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에서 580억원 규모의 미군 시설 공사가 추진되는 사실을 비서실과 수석진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점도 질타했다.

고 의원은 "시장 1호 사업 예정지 한복판에서 580억원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시 정무라인 전체가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정보 공백"이라며 "실무 부서가 접근하기 힘든 중앙부처 핵심 동향과 잠재적 리스크 정보를 최종적으로 종합해 시장에게 직보하는 컨트롤타워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박상길 의원(민주당·남구2)은 민형배 시장이 SNS에 공무원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시정상황실의 '제1호 안건'으로 소개한 것을 두고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상황실의 첫 번째 안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며 "내부 논의 사안과 공식 정책을 구분하고 시장 SNS에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좌진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윤주식 비서실장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윤 실장은 "저 자신부터도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의원들은 물론 언론인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김영기 제7대 글로벌방송 사장 취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대학이 출자해 설립한 재단법인 글로벌광주방송(GGN)의 김영기(사진) 신임 사장이 3일 취임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사장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임기 2년의 제7대 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사장은 언론학자로서 지역 언론과 문화, 언론의 공공성, 미디어 경영, 문화콘텐츠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해 왔다.

광주MBC와 교통방송, KCTV 등 지역 방송사의 시·청취자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방송의 공공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08년 '광주영어 FM-R 방송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의 책임자로 참여해 글로벌광주방송의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방송 설립 이후에도 청취자위원장, 경영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방송의 성장 과정에 함께해 왔다.

김 사장은 "글로벌광주방송이 설립될 당시부터 지켜온 공공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경영은 보다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며 "구성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투명한 경영과 새로운 사업 개발을 통해 GGN을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디어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9년 4월 개국한 글로벌광주방송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있으며, 광주98.7㎒와 여수93.7㎒, 유튜브 등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기수희 기자



사회연대경제정책수립 TF자문단 간담회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이 3일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사회연대경제정책수립 TF자문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핵심과업과 추진방향 공유 및 자문단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교육청, 교육부 페널티 대책 마련해야"

학생교육수당·꿈드리미 감액 우려
정기성 의원 "사업 기준 정비"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사진)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권 학생교육수당과 광주권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이 교육부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금 감액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이 높은 순위를 매긴 뒤 8개 교육청에 대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적용되며 1-8위 교육청은 최대 100억원까지 교부금이 감액된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초등 3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월 5만-1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학생에게 연 60만원, 고등학생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부의 패널티로 인해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두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부교육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현금성 복지가 아닌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며 "추후 교육부의 판단 기준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업 지속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준에 맞게 지원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72% 가을철 발생…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을철 등산과 캠핑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72.1%가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은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후 발열과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발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는 것이 좋다.

전남광주시는 등산로 입구와 캠핑장, 자연휴양림 등 주요 야외활동 장소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를 확대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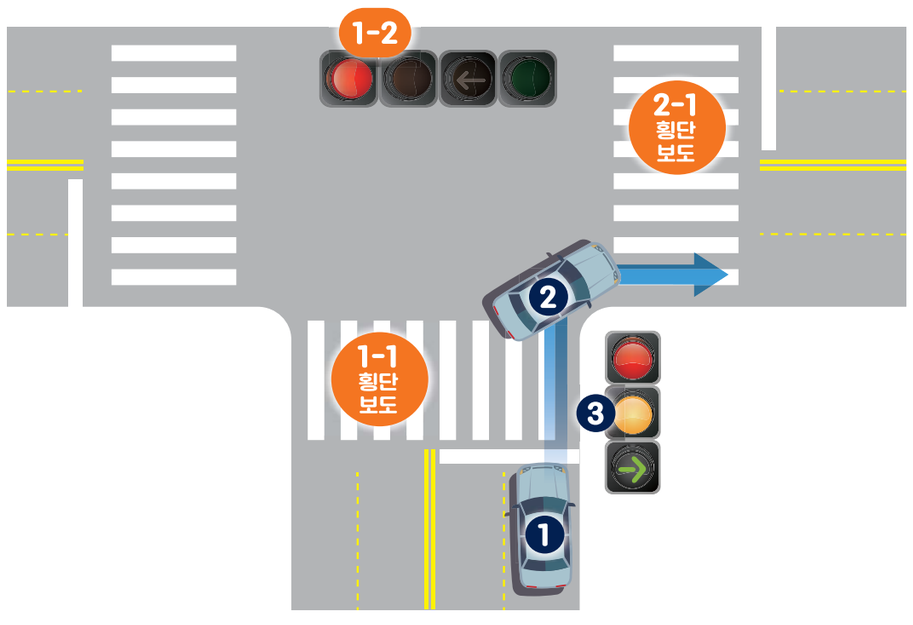
또 의료기관·보건소와 협력해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광주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을철 단풍 구경과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누구나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며 "예방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